

## 宗說

## 문중 인재 양성을 활성화 하자



권기현 (權甲鉉, 종보편집 위원장: 복야공파 35세)

나라에 국시(國是)가 있듯이 우리 대종회에도 종시(宗是)가 있으며 매월 종보 제1면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국시의 뜻은 사전에 보면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국가의 이념이나 국정의 근본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시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라'를 '종중(宗中)'으로 '국민'을 '족인(族人)'으로 대체하면 종시의 사전적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시는 '우리 대종회에서 우리 100만 족친(族親)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100만 족친들이 우리 권문(權門)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시의 내용은 그 첫 번째가 조상(祖上)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족친(族親)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후세(後世)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사회(社會)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혈연공동체 즉 혈족(血族)에 관한 것이며 넷째는 사회공동체 즉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시는 혈족과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조항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추원보본(追遠報本)으로서 선조의 유적을 온전하게 잘 수호하고 제사를 정성껏 받들며 각종 위선사업(爲先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돈종목족(敦宗睦族)으로서 친목회나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족의(族誼)를 돈독히 다지자는 것이며, 셋째는 후세계도(後世啓導)로서 장학금 지급, 보학강좌(講學講座) 등을 통하여 후세 교육에 기여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사회봉사(社會奉仕)로서 성금 등의 기부를 통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종시의 세 번째 항과 관련하여 후세를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앞서 말한 장학금 지급 등으로 먼 장래를 기약하는 사업 외에 지금 당장 종사(宗事)를 이어나갈 후계자(後繼者) 또는 후임자(後任者)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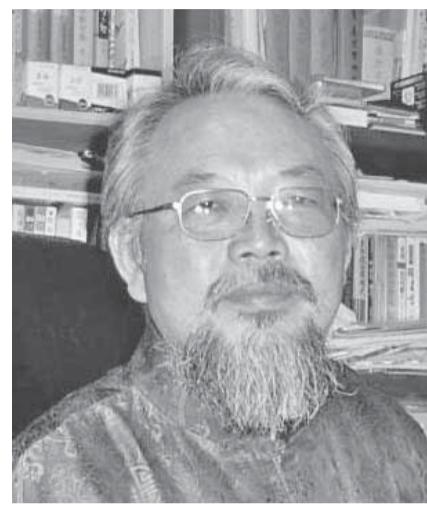
예전에 선산(先山) 아래에서 일가친척이 한데 모여 살던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중이 하는 일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후임자를 육성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살고 있고 또 특히 지금처럼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집합(集合)이 제한되어 집안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가까운 친척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종사 담당 후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적극적으로 문중을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각 문중에서 매년 초 최근에 직장에서 퇴임한 족친들을 한데 모아 얼굴을 익히고, 정기적으로 보학강좌도 개최하며, 문중의 현안도 함께 논의하여 문중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종회나 전국적인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젊은 족친들만 참석하게 하면 서서히 먹여 다시는 참석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문중 어르신들께서 함께 참석하여 다른 문중 족친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의결 절차도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종회나 대종회 같은 데서도 이런 차세대 족친들에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여 종사를 익히게 하면 후계자 양성이 그야말로 저절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문중 발전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종시(宗是)의 다른 항목들도 더욱 잘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대종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 신축년(辛丑年)에는 부디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終熄)되어 작년에 개최하지 못했던 여러 행사들이 치질 없이 진행되고 이때 각 문중마다 신진(新進) 후계 족친들이 더욱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8)

버금가게 폐내는 정조의 심정과 25년간(1776~1800)의 정치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후하다고 본다.

우리 역사에서 신라 때 세 여왕(선녀, 진녀, 진성)같이 여성의 실제로 왕이 아니면서 왕비(황후)나 대비(태후)로서 수렴평정하며 정사를 좌지우지하여 권력과 이익을 탐하여 정국의 혼란과 망국의 위기로 몰아넣은 경우가 있었다. 고려 경종의 황후(현애황후 황보씨)로서 목종의 모후(천추태후), 조선의 태종 왕비(원경왕후 민씨), 덕종 왕비(소혜왕후 한씨)이며 성종의 모후(인수대비), 종종 왕비(문정왕후 윤씨), 현종 왕비(明聖王后 김씨), 영조 계비(정순왕후 김씨), 고종 왕비(明成王后 민씨, 1897년 대한제국 후 명성황후로 추존) 등이다. 그들은 국왕을 보필하는 왕비(황후)이며 나라 백성을 보살피는 국모로서 내명부의 수장이었지만 국정에 관여할 명분과 자격이 없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왕처럼 군림하여 국정을 농단하며 백성을 가렵주구하거나, 시집인 왕족들을 모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친정 권속들을 살찌웠다. 그러면서도 권한과 명분이 없었기에 역사에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10여년 전에 1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왕의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는 이른바 '팩션'이라 한다. 그러나 [왕의 남자]는 조선조 역사 기록을 보면 연산군(장녹수) 시대에 맞추면 핀션에 가까워진다. 그보다는 이 영화는 오히려 고종(민비)과 여흥 민씨 세도정치 시대(정권)를 배경으로 하면 '팩션'에 적합한 이야기로 보인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와 민씨 일파의 익모로 정권에서 물러났다. 그 이후 왕과 왕비가 놀이를 즐겨 밤마다 잔치를 베풀고 늦게까지 연회에 빠졌다. 판소리꾼, 배우, 기생, 무당 그리고 사당패들의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연극과 기예에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대궐 뜰에는 밤새도록 등불이 대낮처럼 커져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치고 잠자리에 들었고 한낮에 되어서야 기침(起寢)했다.

이건창, 황현 등과 함께 구한말과 일제시기에 뛰어난 학자며 문장가였던 김택영(호는 창강滄江, 1850~1927)은 고종과 민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였다.

"이로 해서 수 천금을 썼다. 대원군이 10년 동안 저축하여 내수사에 간직한 돈과 호조, 선혜정의 창고는 1년이

못되어 깡그리 비었다." ("韓國歷代小事") 역사학자 이이화도 "이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임오군란 때까지 군인에게 13개월 동안 군료미를 주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증명이 된다. 어찌 공금만이겠는가? 벼슬을 팔고 뇌물을 받은 돈은 이루 헤아리기 힘든 금액이었다." ("한국사이야기" 17권)라고 설�했다. '근대 국가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군인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나라는 이미 망한 국가이다.'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왕과 왕비에서부터 관료 사대부나 선비(지식인)들이까지 직무유기와 거짓말, 부정부패 그리고 호화사치로 예의엄치마저 팽개쳤다면, 확실히 벌써 망국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며 "정법이야말로 온 세상에 가장 큰 장사"라고 하며 "진짜 육십평이는 반드시 청렴하다."고 하였다는 데… (다음호에 계속)

## 조선시대 성씨별 문과급제자 수

순위	성관	급제자 수
1	전주이씨 전주李氏	847
2	안동권씨 安東權氏	358
3	파평윤씨 坡平尹氏	339
4	남옹홍씨 南鴻洪氏	322
5	인동김씨 安東金氏	310
6	정주한씨 靜州韓氏	284
7	밀양박씨 密陽朴氏	258
8	광산김씨 光山金氏	257
9	연안이씨 延安李氏	242
10	여흥민씨 麗興閔氏	233
11	진주김씨 晉州金氏	221
12	경주김씨 庆州金氏	209
13	남반박씨 濟南朴氏	197
14	동래정씨 東來鄭氏	192
15	한산이씨 韓山李氏	189
16	청송김씨 靑松金氏	188
17	광주이씨 廣州李氏	188
18	봉암조씨 豊巖趙氏	181
19	경주이씨 慶州李氏	176
20	평산신씨 平山申氏	175
21	전의이씨 全義李氏	172
22	연안김씨 延安金氏	164
23	봉천임씨 豊川任氏	146
24	대구서씨 大邱徐氏	138
25	진주우씨 晉州柳氏	133
26	문화유씨 文化柳氏	130
27	김해김씨 金海金氏	128
28	순흥임씨 順興林氏	123
29	의령남씨 宜寧南氏	123
30	봉산홍씨 豊山洪氏	122
31	창녕성씨 昌寧成氏	121
32	연일정씨 延日鄭氏	116
33	해평윤씨 海平尹氏	113
34	창녕조씨 昌寧曹氏	110
35	여주이씨 瑞州李氏	109
36	전주최씨 全州崔氏	106
37	창평김씨 清平金氏	106
38	여선송씨 瑞山宋氏	103
39	성주이씨 星州李氏	101
40	해주최씨 海州崔氏	100
41	길릉김씨 江陵金氏	98
42	덕수이씨 德水李氏	95
43	의성김씨 儀城金氏	94
44	양주조씨 揚州趙氏	94
45	전주우씨 全州柳氏	93
46	양천한씨 陽川韓氏	92
47	한양조씨 漢陽趙氏	90
48	기계유씨 紀溪俞氏	86
49	용인이씨 龍仁李氏	86
50	고령신씨 高靈申氏	84
51	창원황씨 昌原黃氏	80
52	은진송씨 恩珍宋氏	75
53	함평이씨 咸平李氏	71
54	남원윤씨 南原尹氏	71
55	백천조씨 白川趙氏	69
56	수원백씨 水原白氏	65
58	선한김씨 善韓金氏	63
59	인동장씨 仁同張氏	60
60	원주원씨 原州元氏	60
61	해주정씨 海州鄭氏	60
62	진보이씨 真寶李氏	59
63	하동정씨 河東鄭氏	59
64	상주김씨 尙州金氏	59
65	초계정씨 草溪鄭氏	57
66	고령박씨 高靈朴氏	55
67	진주정씨 晉州鄭氏	55
68	능성구씨 須城具氏	54
69	남원양씨 南原梁氏	52
70	나주임씨 羅州林氏	50
71	나주정씨 羅州丁氏	48
72	해주최씨 海州崔氏	47
73	벽진이씨 碧珍李氏	47
74	순한김씨 順寒金氏	44
75	평강채씨 平康蔡氏	43
76	정수황씨 長壽黃氏	42
77	죽신박씨 竹申朴氏	42
78	광주언씨 廣州安氏	41
79	온정정씨 溫靜鄭氏	41
80	경주최씨 慶州崔氏	41
81	죽산인씨 竹山安氏	40
82	진천송씨 銏川宋氏	40
83	우봉이씨 牛峯李氏	39
84	임천조씨 林川趙氏	38
85	고성이씨 固城李氏	38
86	양성이씨 養城李氏	37
87	남명문씨 南平文氏	37
88	진주하씨 晉州河氏	36
89	밀양손씨 密陽孫氏	36
90	함안조씨 咸安趙氏	36
91	예안김씨 禮安金氏	34
92	거창신씨 居昌申氏	34
93	제주고씨 齊州高氏	34
94	순천한씨 順天韓氏	33
95	영천이씨 永川李氏	33
96	협평곽씨 亥平郭氏	33
97	강릉최씨 江陵崔氏	33
98	삭녕최씨 捷寧崔氏	33
99	광주정씨 光州鄭氏	33
100	함양이씨 咸陽李氏	32

출처 :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각 성씨에서 배출된 문과급제자는 최대 15,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과급제자 90% 정도를 배출한 199개 성씨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문과급제자를 기록한 사료 <문과방목>에는 안동권씨 문과급제자는 359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의 저자 이원명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안동권씨는 358명으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과방목>은 1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1위 왕족인 전주이씨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인 셈이다. 한영우 전 서울대교수의 <과거 출신의 사단리>라는 저서에서도 안동권씨는 367명으로 역시 2위이다. 두 사람 연구에서도 9명의 차이가 있는데 한 교수는 <방목별표>, <족보>,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과연 이들이 당당한 벼슬아치의 후예인가 아니면 신분이 낮은 개천에서 솟아난 용인자를 살펴본 연구이기 때문에 이원명 교수보다는 급제자 수가 더 많이 나오는 듯하다. 아무튼 두 사람의 연구에서 안동권씨는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위상을 기하 짐작할 수 있고 명문거족임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 문화(文獻)을 찾습니다

귀중한 문헌(文獻)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문헌 중 한 문헌이라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혜공(景惠公, 부정공파 16세, 휘:専, 단종 외조) 친필 가첩

## 2. 안동권씨 소원록(遼源錄, 1956년, 권계환 편저)